



KBS 대하드라마 고려거란전쟁 시청 후기

김지훈 KBS 제작시설부 팀장



KBS는 작년 말부터 2024년 3월까지 오랜만에 온 국민에게 큰 관심을 받는 대하드라마 <고려거란전쟁>을 방영하였다.

드라마 <고려거란전쟁>이 제작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그동안 사극에서 다루지 않았던 강감찬이라는 역사적 인물을 다룬다는 점에서 신선했고 유명한 귀주대첩과 고려 안정기의 기틀을 마련했던 현종의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되었다.

첫 회부터 대한민국 역사를 통틀어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전투인 귀주대첩의 전투 장면을 일부 공개하며, 거대한 거란국에 맞서 고려가 만든 역사적인 승리 과정에 대한 큰 기대감 속에 스토리가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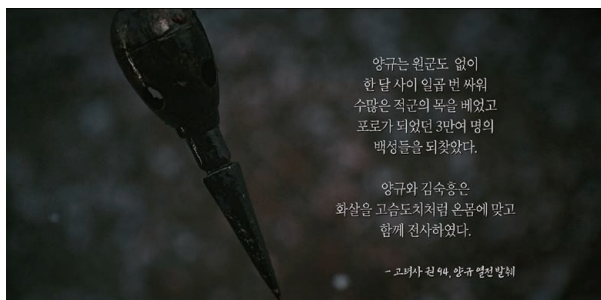


김치양의 난과 강조의 정변으로 어린 나이에 정치적인 입지도 부족한 상황에서 고려의 왕이 된 현종, 얹힌 데 덮친 격으로 시작된 2차 거란 침략.

드라마 전반부는 고려 내부도 어지러운 상황에서 들이닥친 거란의 침략을 현종, 강감찬과 충신들, 양규 장군과 용감한 무장들이 각자의 고군분투 속에 나라를 지켜낸 과정을 짜임새 있게 잘 그려냈고 50분의 러닝타임이 정말 짧게 느껴질 정도였다.

긴박한 상황들을 빠르게 전개한 속도감도 스토리에 더욱 몰입하게 만들었으며 강감찬과 소배압 중심으로 진행된 고려와 거란의 수싸움이 흥미진진했다. 특히 흥화진 전투 등 여러 전투를 승리로 이끈 양규는 이 드라마의 정말 매력적인 숨은 주인공이었다.

열세한 병력으로 퇴각하는 거란 군대를 끝까지 격퇴하고 수많은 고려의 백성을 구하며 장렬하게 전사한 장면은 정말 잘 만든 영화의 클라이맥스라고 느껴질 정도였다. 여태까지 알지 못했던 고려 역사의 자랑스러운 양규라는 실존 인물을 재조명해줬다는 점에서 <고려거란전쟁>이라는 드라마에 감사한 마음까지 들었다.



현종이 거란의 2차 침략으로 피난을 가던 중 겪었던 호족 세력과의 갈등과 고려의 정치적 구조의 문제점, 그리고 이 문제를 바로잡아 호족 세력을 통제하는 내용을 시청했을 때는, 고려의 탄생 배경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었고, 이에 따른 지방 호족 세력의 득세와 횡포가 어떤 지경에 이르렀는지, 또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 잘 배울 수 있었다.

전쟁에 의한 피란을 겪으며 어려운 백성들의 삶과 적대적인 호족 세력을 직접 겪어본 현종이 과연 어떻게 난관을 헤쳐나갈지 궁금해졌다. 따로 현종의 업적에 대해 찾아보니, 호족 세력을 통제했던 과정은 군현제의 골격을 완성하고 강화된 왕권과 중앙집권적인 정치체제를 확립하여 고려 안정기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할 만큼 고려 역사상 크게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고 한다.

드라마 전개상 군현제에 대한 내용은 많이 다루지진 않았지만,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만큼 좀 더 다루줬으면 좋았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이런 점에서 32부작은 너무 짧은 편성이 아니었나 생각했다.



드라마의 제작은 보는 재미와 작품의 흥행에 목적이 있지만, 시청자가 현종의 업적을 찾아보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역사적인 사건과 그 의미, 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도 <고려거란전쟁>을 통해서 잘 전달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고려거란전쟁>의 아쉬웠던 부분은 우리나라의 3대 대첩 중 하나인 귀주대첩을 너무 짧게 다룬 점이라고 생각한다. 3차 거란 침략에 대비하며 중갑기병을 기르는 과정과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강감찬의 장수로서의 활약상, 그리고 강감찬 이외에 김종현 등 귀주대첩에 참여하거나 중요한 역할을 한 장수들의 이야기가 더 궁금했었다. 그리고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귀주대첩이 너무 순식간에 끝나버린 느낌이다.

전투 장면 중에는 중간중간 검차를 활용한 멋진 장면도 있긴 했지만, 귀주대첩만으로도 최소 2회 이상의 분량을 할애해도 된다고 생각될 만큼 대한민국 역사상 손꼽히는 대승을 거둔 전투 과정이 너무나도 짧게 느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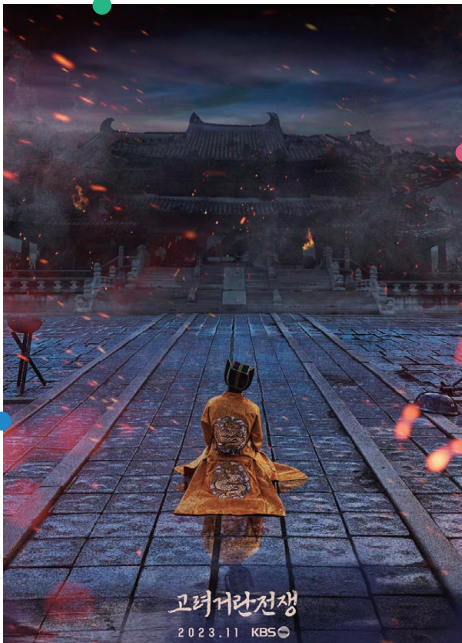
전투 중에 비가 내리면서 던져지는 마름쇠(철질녀)로 전투가 갑자기 마무리되는 장면의 의미를 이해하는 시청자는 과연 얼마나 될지도 의문이다. 마찬가지로 32부작이라는 너무 짧은 편성이 야속하게 느껴졌다.



<고려거란전쟁>을 마지막 회까지 시청하고 나니 전반적인 스토리가 정말 짧다고 느껴졌던 건 그만큼 이 드라마를 보는 동안 이 작품에 대한 애정도 많이 쌓였고 계속 시청하며 즐거기를 바랬던 마음이 컸던 것 같다.

짧게 느껴진 시간이었지만 <고려거란전쟁> 드라마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우리나라의 역사적 사실과 인물을 다루고 시청자에게 알렸다는 점에서 큰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고려의 7대 왕 목종은 남색은 간신배가 권력을 이용하는 모습으로 표현이 되었지만, 고려의 문화가 생각보다 개방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강감찬에게 잔소리를 퍼붓는 부인의 모습에서도 고려 시대 여성의 지위가 조선시대보다 훨씬 더 자유로웠다는 사실을 잘 표현한 것 같다.



그동안 사극에서 자주 다뤄졌던 시기가 아닌 새로운 역사적 시기를 드라마로 시청하면서 우리나라의 역사와 강감찬을 비롯한 인물에 대해 좀 더 배우고 성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주로 다루진 않았지만, 강동 6주를 외교 기술로 얻은 서희, <고려거란전쟁>에서 다룬 시간 이후 일어날 고려 무신정변과 몽골과의 전쟁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떠올리고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어 좋았다.

<고려거란전쟁>과 같은 드라마가 앞으로도 꾸준히 제작되어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훌륭한 인물들을 시청자들에게 널리 알릴 기회가 더 많아지길 바라본다. 📺

고려거란전쟁